

전남농협 '3월의 새농민상' 부부 3쌍 선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서홍)가 3월 '이달의 새농민상' 3쌍 부부를 선정·시상했다고 7일 밝혔다. 수상의 주역은 임현채·서은미(고흥 팔영농협), 이경식·임영희(보성 북부농협), 윤홍근·최양숙(순천광양축산농협) 씨 부부다.



고흥 팔영 농협 임현채·서은미 부부.

임현채씨 부부는 고흥군 과역면에서 꾸꾸는 식물농장을 운영하며 수도작과 유자 재배를 하고 있다. 과역면 풀뿌리작목반 회장, 도야마영농회 회장 및 이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귀농인 대상 농업기술 보급에 힘쓰고 있다.



보성 북부농협 이경식·임영희 부부.

이경식씨 부부는 보성군 복내면(봉천농장)에서 41년 간 한우·염소 사육과 조사료재배를 병행해왔다. 후계농업인 육성 등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순천광양축산농협 윤홍근·최양숙 부부.

순천시 황전면에서 태양농장을 운영하는 윤홍근씨 부부는 지난 1983년 귀농했다. 38년 동안 축적된 축산 비결을 후계 축산인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으며, 지역발전 위원·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달의 새농민상은 농협중앙회가 매달(1, 8, 12월 제외) 선도 농업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박 본부장은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업경영과 기술개선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여성가족재단, 세계여성의 날 행사



전남여성가족재단 세계여성의 날 기념 행사 모습. <전남여성가족재단 제공>

전남여성가족재단(원장 안경주)은 8일 무안군 남악중앙공원에서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이 주관한 기념행사에 참여했다.

정권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날을 기념해 제정됐다. 한국에서는 2018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여성의 날'이 공식 지정됐다.

이번 행사는 'Break The Bias! 편견을 깨라'를 주제로 열렸으며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전남폭력예방교육지원기관, 전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전남센터가 참여해 시민참여형 부스를 함께 운영했다. 이들은 젠더폭력 예방교육을 홍보하고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긴급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떡과 장미를 나누었다.

안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법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증가한 가정폭력과 돌봄부담, 실업, 빈곤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의 문제를 같이 바라보고 고민해야 한다"며 "여성고용이 아닌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고민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할 때, 포용과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성평등,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참

여(전재 기자 ej6621@kwangju.co.kr)

'테니스' 킹·'마라톤' 스위처 등 스포츠 새 역사 쓴 여자 선수들



2013년의 스위처 모습. 261번은 1967년 보스턴 마라톤 출전 당시 번호.

인도 매체인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스포츠 역사에 이름을 알린 주요 여자 선수들을 소개했다.

이 매체는 1967년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한 여자 선수 캐서린 스위처(75·미국)의 사연을 전했다.

당시 '남자만 출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는데 대회에 출전하려던 캐서린을 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막아섰고, 우여곡절 끝에 완주했지만 실격 처리됐다.

하지만 이런 스위처의 노력은 그로부터 5년 뒤인 1972년에 보스턴 마라톤에 여성이 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됐다.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79·미국)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12번이나 우승한 킹은 1973년 남자 선수와 '성 대결'을 벌였고,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창립과 여자 선수들의 상금을 남자 선수와 같게 만드는 일에도 앞장섰다.

지난달에는 미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자국 협회를 상대로 남녀 동일 임금 지급을 약속받기도 했다.

'체조 전설'로 불리는 나디아 코마네치(61·루마니아)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기계 체조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선수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3관왕,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2관왕의 성적을 냈다.

육상 선수였던 플로렌스 그리피스 조이너는 1988년 서울올림픽 육상 여자 100m와 200m, 400m 계주 3관왕으로 국내 팬들과도 친숙한 선수다. /연합뉴스

여수해경, 여수 신항 일원 해양쓰레기 수거활동



여수해양경찰서가 최근 한국해양구조협회 전남동부지부 봉사대 등 30여명과 함께 여수시 신항 일원 해안가에서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은 해안에 방치된 폐어구 및 불법배출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다. <여수해경 제공>

광주전남적십자, 북구 임동서 '쓰담걷기 캠페인'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가 최근 적십자봉사원 120명과 함께 광주시 북구 임동서 일대에서 '우리동네 한바퀴, 쓰담걷기 캠페인'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제공>

TV프로그램 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KBS1	KBS2	MBC	KBC/SBS
06	00 특집 KBS 뉴스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 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07	50 인간극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2부	20 광주 MBC 뉴스 투데이 50 이맛에 산다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08	25 아침마당		15 놀면 뭐하니? 스페셜	40 씨름 하우스(재)
0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15 인간극장 스페셜 55 주접이 똥(재)	25 특집 930 MBC 뉴스 50 나 혼자 산다 스페셜	55 특집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30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재)
11	00 국가대표 와이프(재)	05 다큐멘터리 3일(재)	50 특집 12 MBC 뉴스	
12	00 특집 KBS 뉴스 12	00 2022 베이징 패럴림픽	2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네모세모
1	0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아성여정 플러스(재)	45 크레이지 러브(재)	50 특집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20 태종 이방원(재)			00 특집 뉴스브리핑
3	10 어린이 동물티비 40 팔도밥상 스페셜	00 신사와 아가씨(재)		
4	00 사사건건		00 선택 2022 1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00 내고향 전파(재) 55 닥터 365
5	00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1~2부	50 통합뉴스룸 ET		00 2022 국민의 선택 1부
6		30 2TV 생생정보	15 선택 2022 2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30 2022 국민의 선택 특집 SBS 8 뉴스 2부
7		50 사랑의 파배기		
8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20 선택 2022 3부 MBC 뉴스데스크	30 KBC 8 뉴스
9	00 특집 KBS 뉴스 9	30 우리끼리 작전타임	20 선택 2022 4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00 2022 국민의 선택 3부
10	00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3부	40 갯파더	20 선택 2022 5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30 2022 국민의 선택 4부
11				
12	00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4부	00 스튜디오 K 25 스포츠 하이라이트 50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재)	50 선택 2022 6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방송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10 한국의 들레길	16:40 당동맹 유치원(재)
05:5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7:00 EBS 뉴스
06:10 세계테마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20 못말리는 어린 양 손
07:00 두다다쿵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30 하프와 친구들(재)
07:15 티시타시	12:00 EBS 뉴스 12	17:45 시용
07:30 고고다노 공룡탐험대	12:10 극한직업	18:00 생방송 워터시 해결단
07:45 최고다! 호기심딱지	13:00 일단 해봐요 오후 1시 스페셜	18:45 타타와 쿠마
08:00 당동맹 유치원	13:50 EBS 다큐프라임	19:00 미니특공대 애니멀트론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4:4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19:30 한국의 들레길
08:35 하프와 친구들	15:05 클래스 e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08:50 방귀대장 뽕뽕이	15:25 EBS 비즈니스 리뷰 플러스	20:40 세계테마기행
09:05 빅 블루	15:50 할 수 있다고	21:30 한국기행
09:20 엠버와 함께하는 생활안전 이야기	16:05 통통가족	21:50 EBS 다큐프라임
09:30 타요의 생생극장	16:15 페파 피그	22:45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09:40 우리집 유치원	16:25 봉우야 말해줘3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드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9일(음 2월 7일 辛酉)

<p>36년생 합리적으로 이끌어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48년생 결과 모든 과정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60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72년생 관세를 안정시키는 디딤돌이 되어 줄 것이다. 84년생 중저대한 판단의 분수령에 놓여 있으니 장고를 거듭하라. 96년생 생애에만 마무리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36, 73</p>	<p>42년생 체계를 바탕으로 해야 하느니라. 54년생 지금 확실히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순리를 거스르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해 되리라. 78년생 번거롭더라도 자주 접하다 보면 능숙해질 수밖에 없다. 90년생 초기에는 열세하나 나중에 상황을 이룬다. 02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1, 93</p>
<p>37년생 감미로운 기쁨이 있겠다. 49년생 두루 살펴 가며 처리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61년생 인내는 곧 보람의 열쇠가 될 것이다. 73년생 당대지사에 영향을 미칠만한 제반 요소들이 연쇄적으로 나타난다. 85년생 호혜 관계에 놓이면서 생산성을 띤다. 97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행운의 숫자 : 03, 74</p>	<p>43년생 주관적인 사고에 갇혀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 볼 일이다. 55년생 마음을 잘 다스려야만 고비를 넘길 수 있다. 67년생 귀인과 소중할 인연을 맺게 되는 날이다. 79년생 당연시해 왔던 것 속에 문제점이 만연해 있다. 91년생 공동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3년생 함께하는 이들과의 인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행운의 숫자 : 09, 51</p>
<p>38년생 얼마 정도의 규모와 강도로 지속하느냐의 문제이다. 50년생 절실하다면 체면 불구하고 요청하라. 62년생 판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 74년생 기운은 길하니 실행하는 일만 남아 있다. 86년생 처음부터 아예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이 맞다. 98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일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59</p>	<p>44년생 직권한 만큼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56년생 땅이 꺼지게 한숨될 일이 생길 것이다. 68년생 강이 바다에 이르는 듯한 대단원의 합류점이 보인다. 80년생 주체에 따라서 전압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92년생 불합리한 판도이니 벗어나야만 한다. 04년생 확신이 서더라도 아직 실행할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16, 76</p>
<p>39년생 불가피 하다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 낫다. 51년생 오히려 인한 구설수가 보이니 재반사에 삼가라. 63년생 과거에 부담스러웠던 것이 더 나은 계기를 마련한다. 75년생 정반대의 방향으로 뻗어 나가는 판국이다. 87년생 파격적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다. 99년생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행운의 숫자 : 24, 85</p>	<p>33년생 뒤늦게 후회할 일은 예초에 하지 않는 것이 옳다. 45년생 상당한 수익이 주어지면서 풍요로움을 더 할 것이니라. 57년생 유연한 사고와 열린 마음이 원만함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니 정성을 다하라. 81년생 성과의 윤곽이 보일 것이다. 93년생 발전을 기약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5, 79</p>
<p>40년생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면 자제하라. 52년생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64년생 듣기 좋은 말이 득이 될 수도 있다. 76년생 일반적인 보편성과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88년생 실제적인 내용이 충만해야 빛을 보게 된다. 00년생 평상시에 바라고 있었던 마음가짐으로 판단해야 틀림없겠다. 행운의 숫자 : 49, 91</p>	<p>34년생 대리인을 내세우는 것이 낫다. 46년생 정성에 비례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58년생 한 번 실수한다면 오점으로 남으리라. 70년생 물질적인 면은 양호하지만 심리적인 압박감이 따를 수 있다. 82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부질없는 일이 될 것이다. 94년생 일도양단할 수 있는 합리적 조치들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8, 68</p>
<p>41년생 예상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 때문에 애를 먹겠다. 53년생 겸손의 결과는 투자 없이 얻는 순이익이니라. 65년생 특별한 의미의 징후들이 속속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77년생 가장 가까운 이가 제일 견고한 제방이 된다. 89년생 판세의 변화를 가져 올만한 일이 생긴다. 01년생 빈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행운의 숫자 : 46, 55</p>	<p>35년생 머지않아서 성사 될 것이니 초조함이나 노파심일랑 버려도 된다. 47년생 기발한 요령 보다는 꾸준한 정진이 더 낫다. 59년생 이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 71년생 우연이나 천연의 혜택을 입을 수도 있다. 83년생 이전보다 훨씬 좋은 여건이다. 95년생 사소한 것으로 무너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9, 98</p>